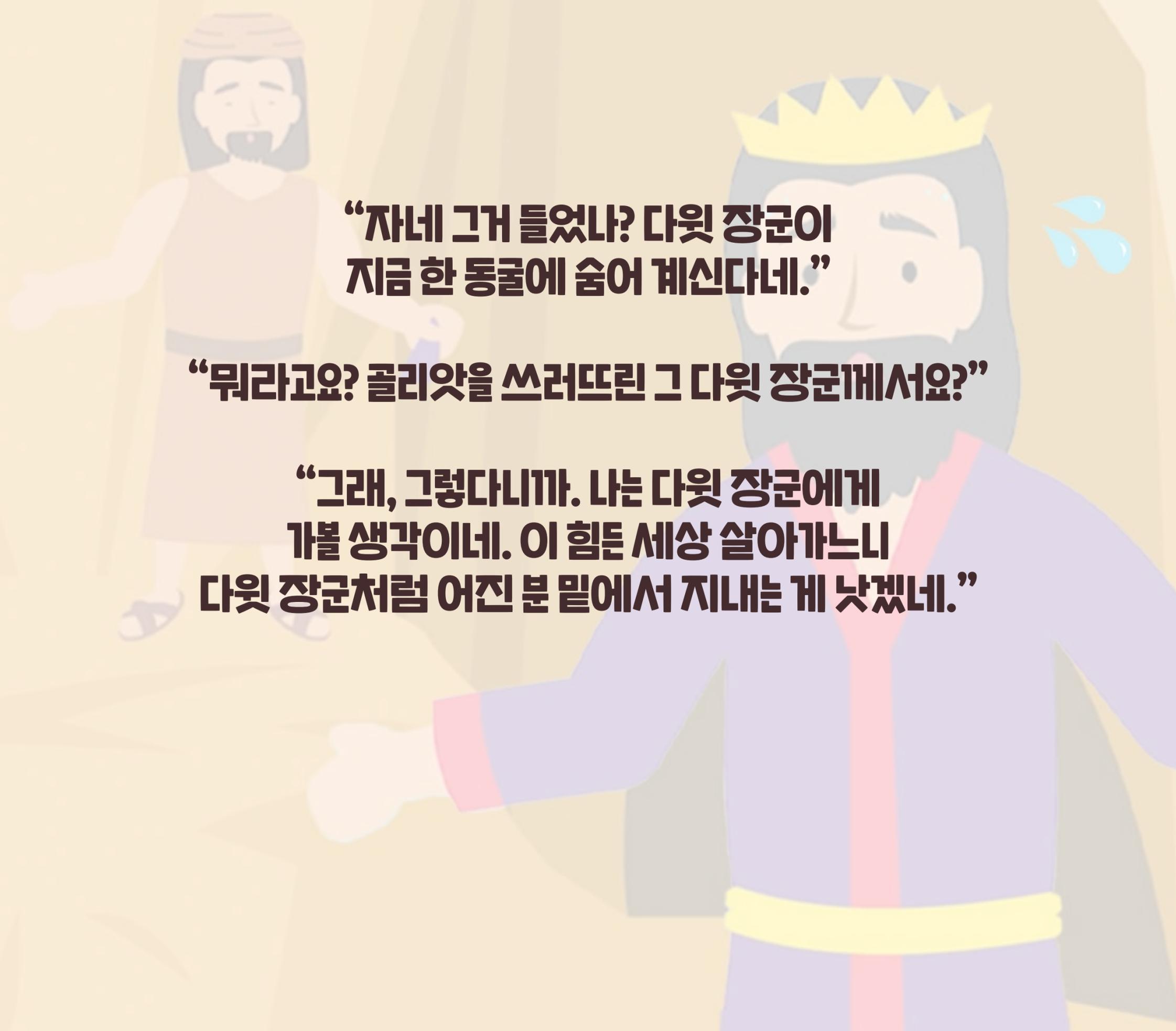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8

사울을 살려준 다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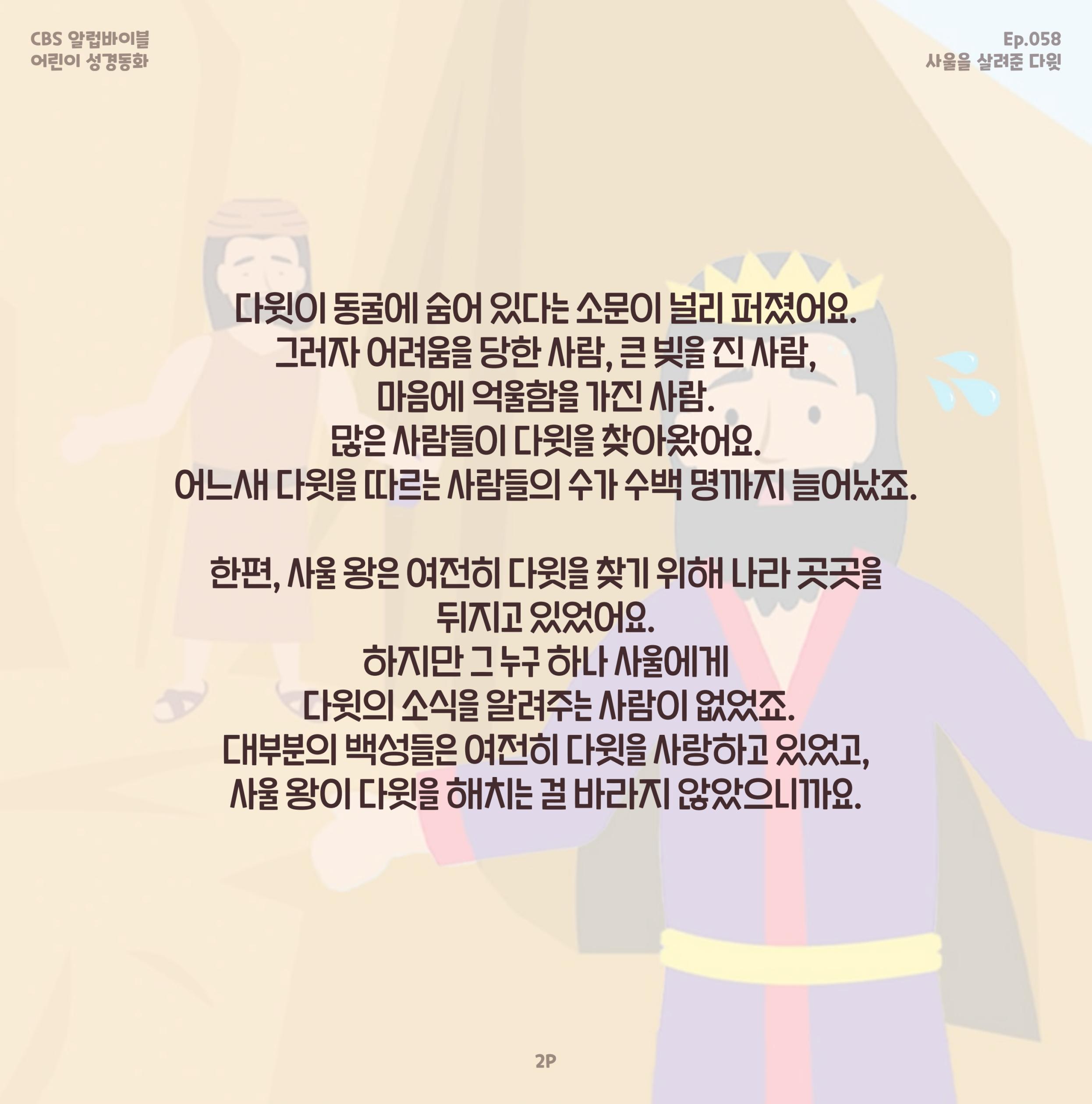
(사무엘상 22:1~26:25)



**“자네 그거 들었나? 다윗 장군이
지금 한 동굴에 숨어 계신다네.”**

“뭐라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장군께서요?”

**“그래, 그렇다니까. 나는 다윗 장군에게
가볼 생각이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느니
다윗 장군처럼 어진 분 밑에서 지내는 게 낫겠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러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 큰 빛을 진 사람,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느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수백 명까지 늘어났죠.

한편,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찾기 위해 나라 곳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는 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위, 위대하신 사울 왕이시여
드, 드디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군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틀림이 없다는데쇼?”**

그 말을 들을 사울 왕은 곧장 삼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뽑아서 엔게디 광야로 향했어요.
군사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광야 곳곳을
수색하게 하고 사울 본인도 열심히 다윗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한참쯤 지났을 때

**“어휴, 갑자기 배가 이렇게 살살 아프지?
어디 용변 볼 만한 데 없나?
여봐라, 나는 저~기 있는 굴에서
잠깐 쉬고 있을 테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라.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말이다.”**

사울 왕이 혼자 외딴곳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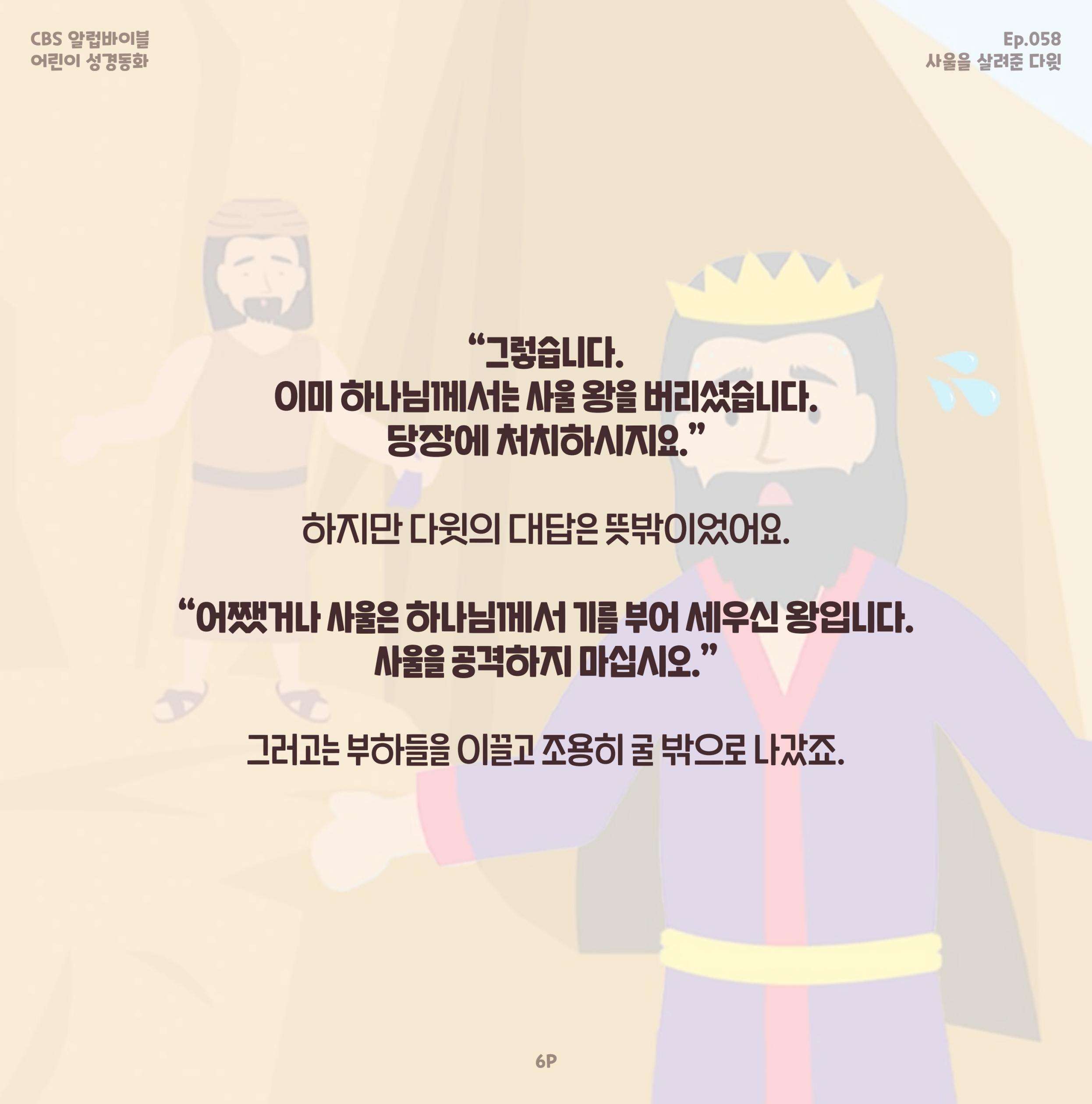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구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이 눈앞에
쫓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는
사울의 옷자락 끝부분을 잘라내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죠.

**“아니 장군, 포악한 사울 왕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어찌하여 옷 조각만
잘라 오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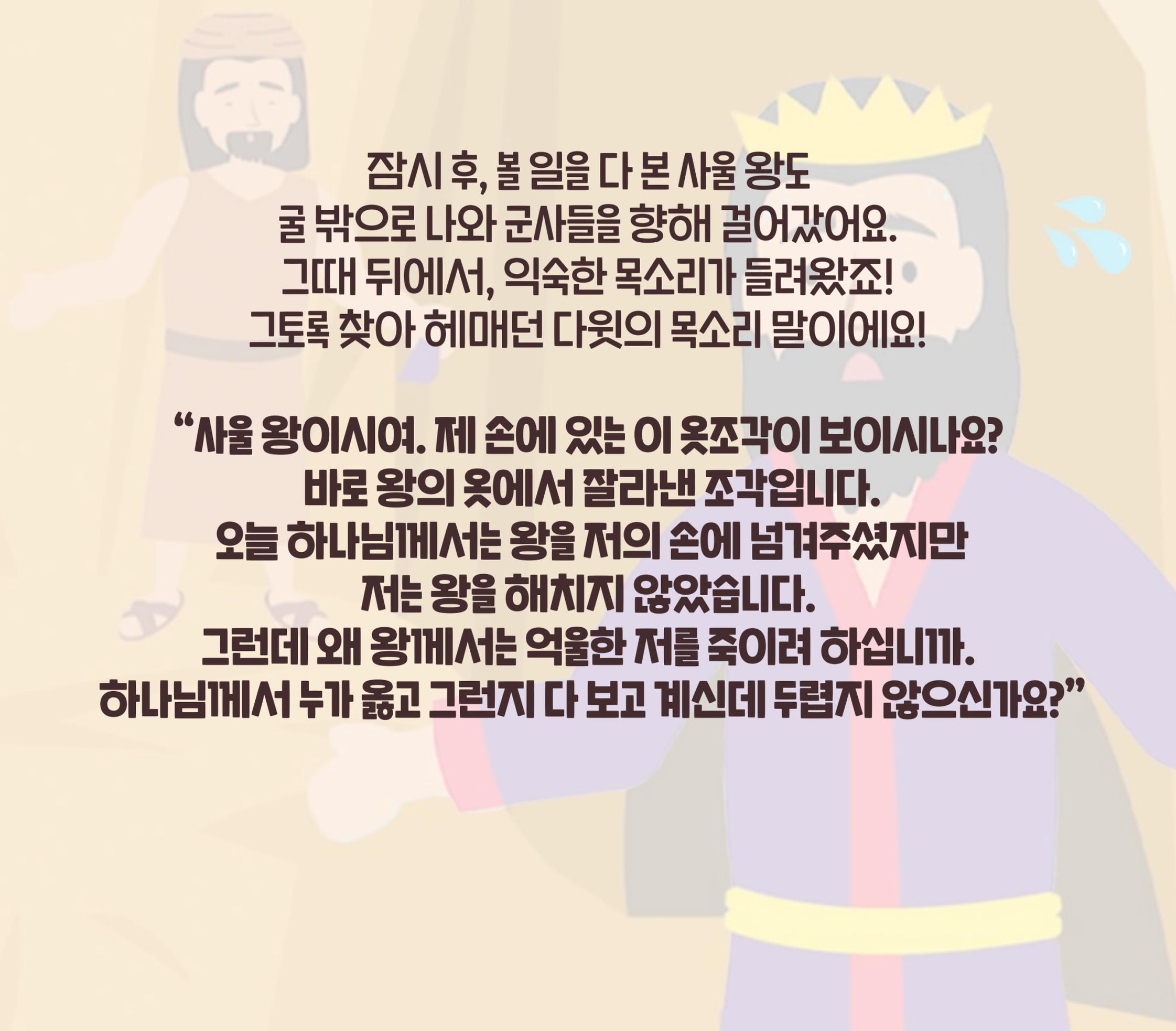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당장에 처치하시지요.”**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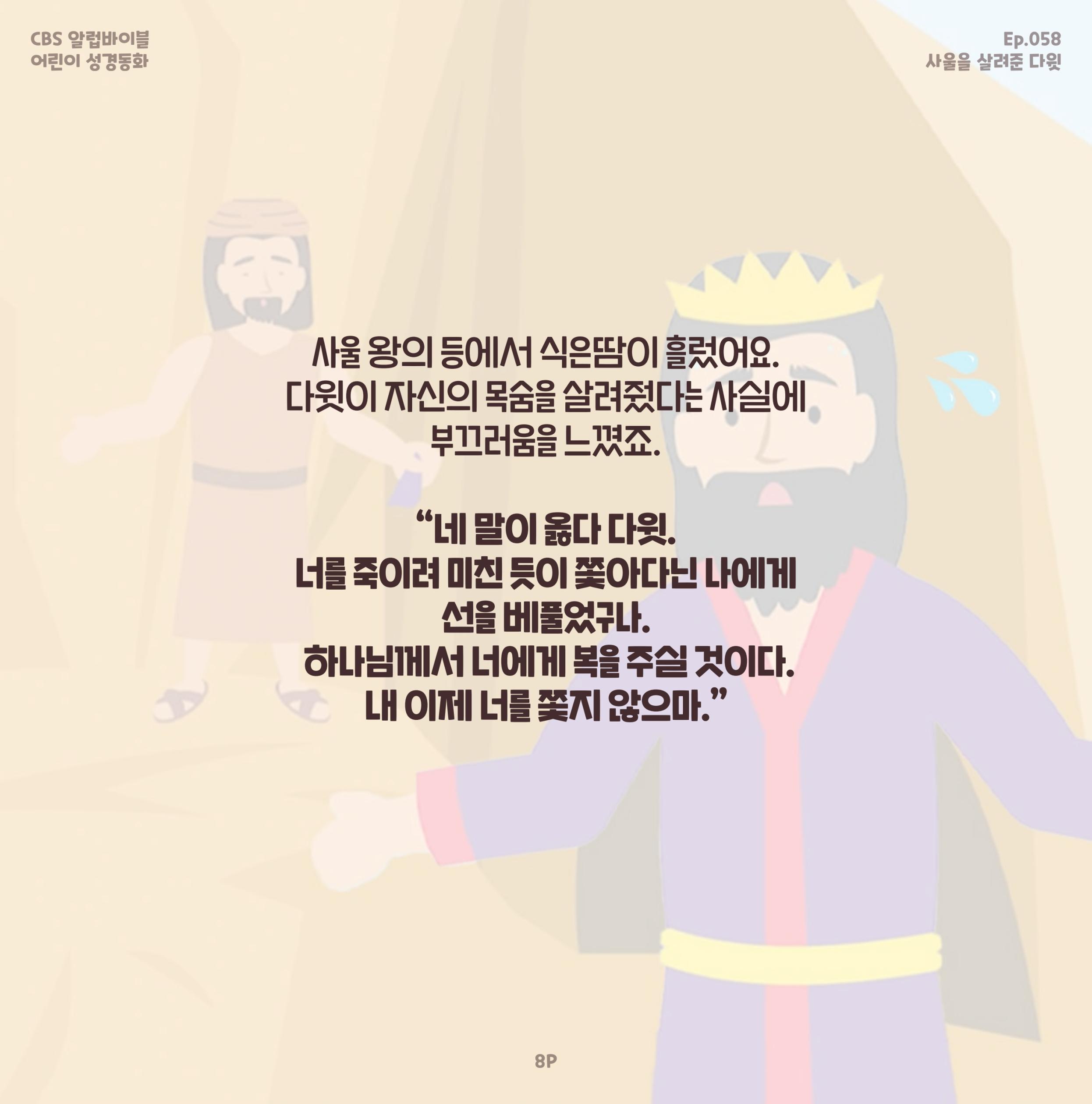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조용히 굴 밖으로 나갔죠.



잠시 후, 볼 일을 다 본 사울 왕도
굴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윗의 목소리 말이에요!

**“사울 왕이시여. 제 손에 있는 이 옷조각이 보이시나요?
바로 왕의 옷에서 잘라낸 조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저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억울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그런지 다 보고 계신데 두렵지 않으신가요?”**



사울 왕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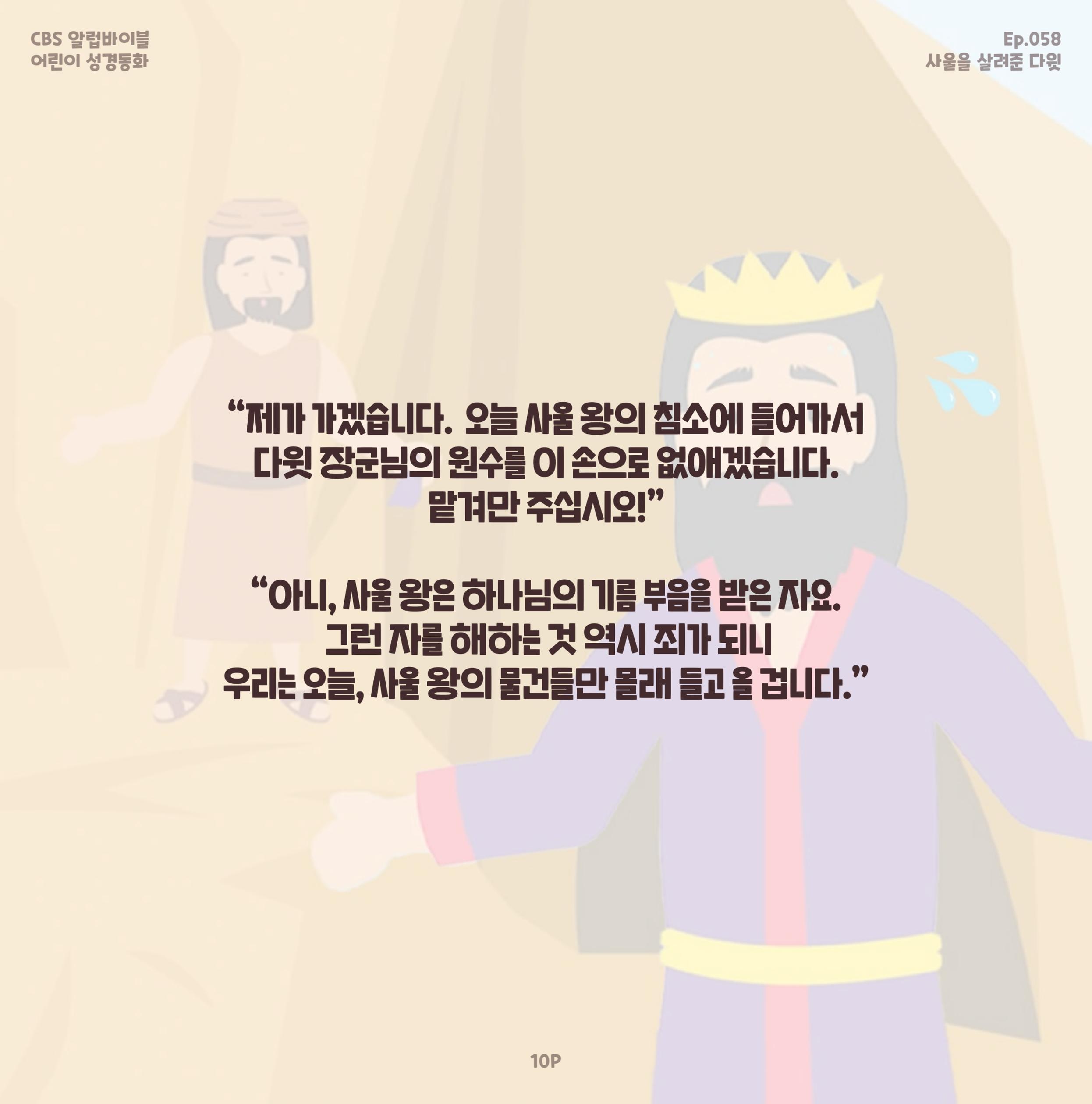
“네 말이 옳다 다윗.
너를 죽이려 미친 듯이 쫓아다닌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이제 너를 쫓지 않으나.”

그렇게 사울 왕은 부하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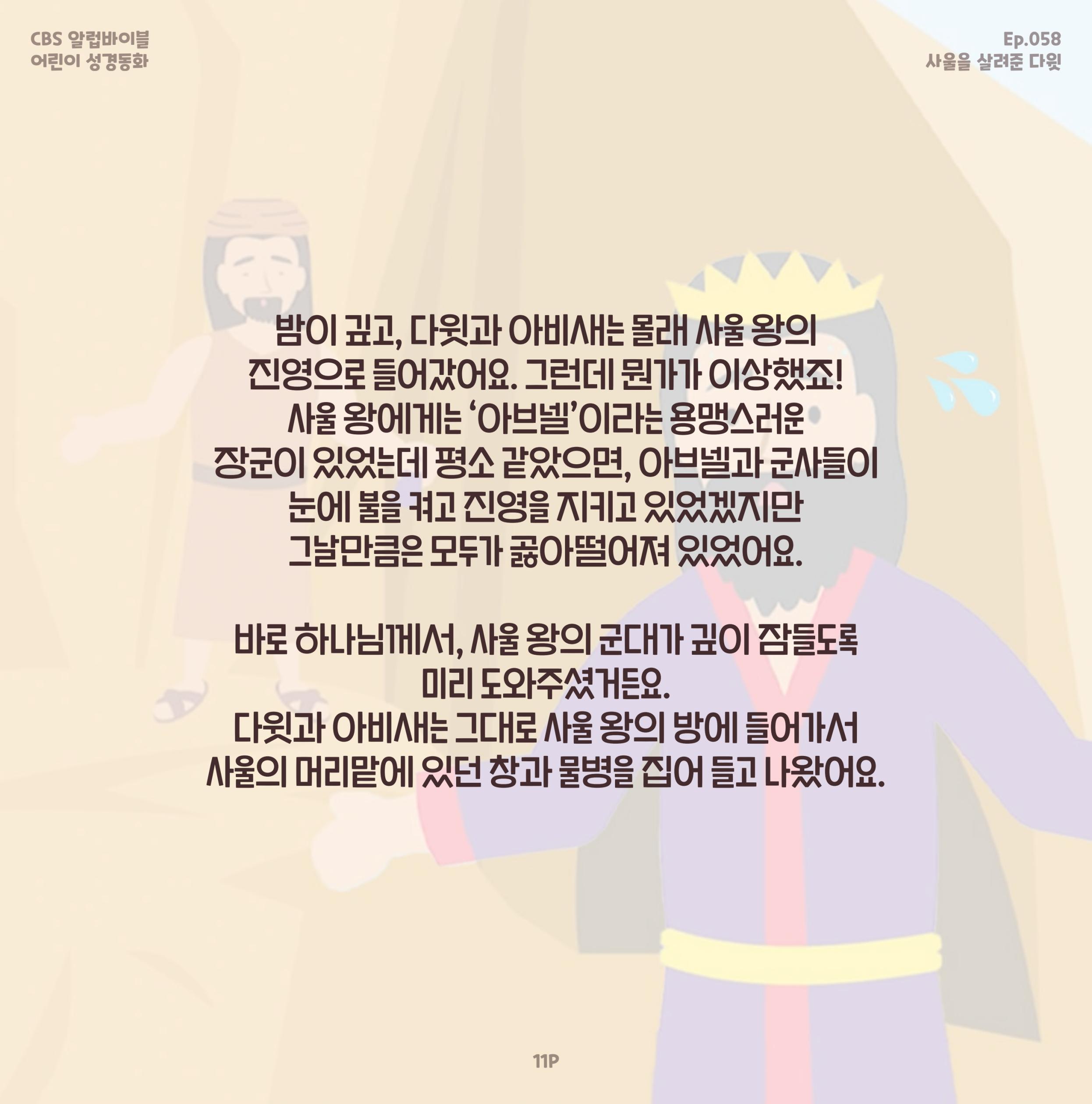
**“오늘 밤, 사울 왕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그러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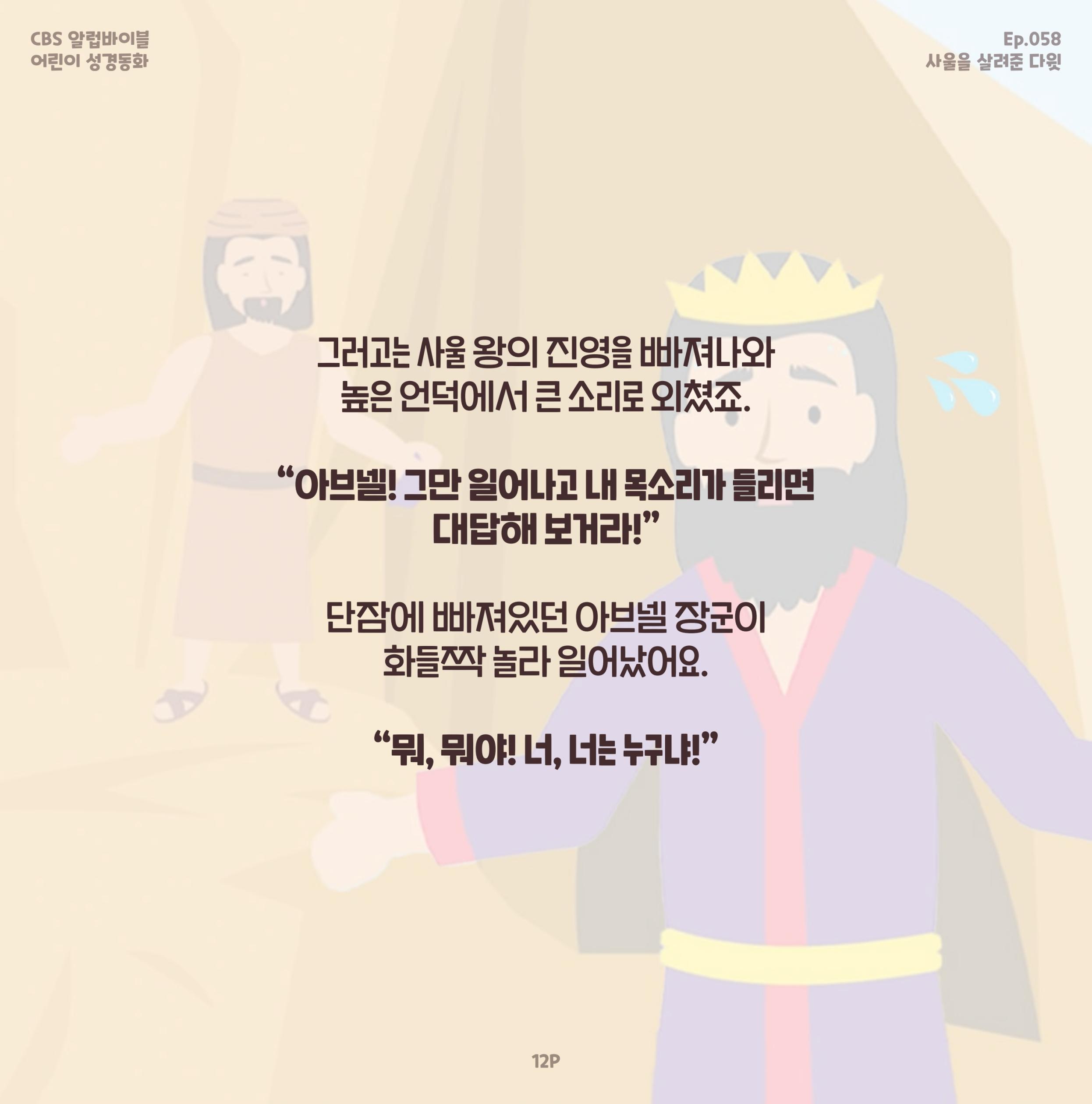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다윗 장군님의 원수를 이 손으로 없애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요.
그런 자를 해하는 것 역시 죄가 되니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의 물건들만 몰래 들고 올 겁니다.”**



밤이 깊고, 다윗과 아비새는 몰래 사울 왕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죠!
사울 왕에게는 ‘아브넬’이라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아브넬과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진영을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꿈아떨어져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군대가 깊이 잠들도록
미리 도와주셨거든요.
다윗과 아비새는 그대로 사울 왕의 방에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집어 들고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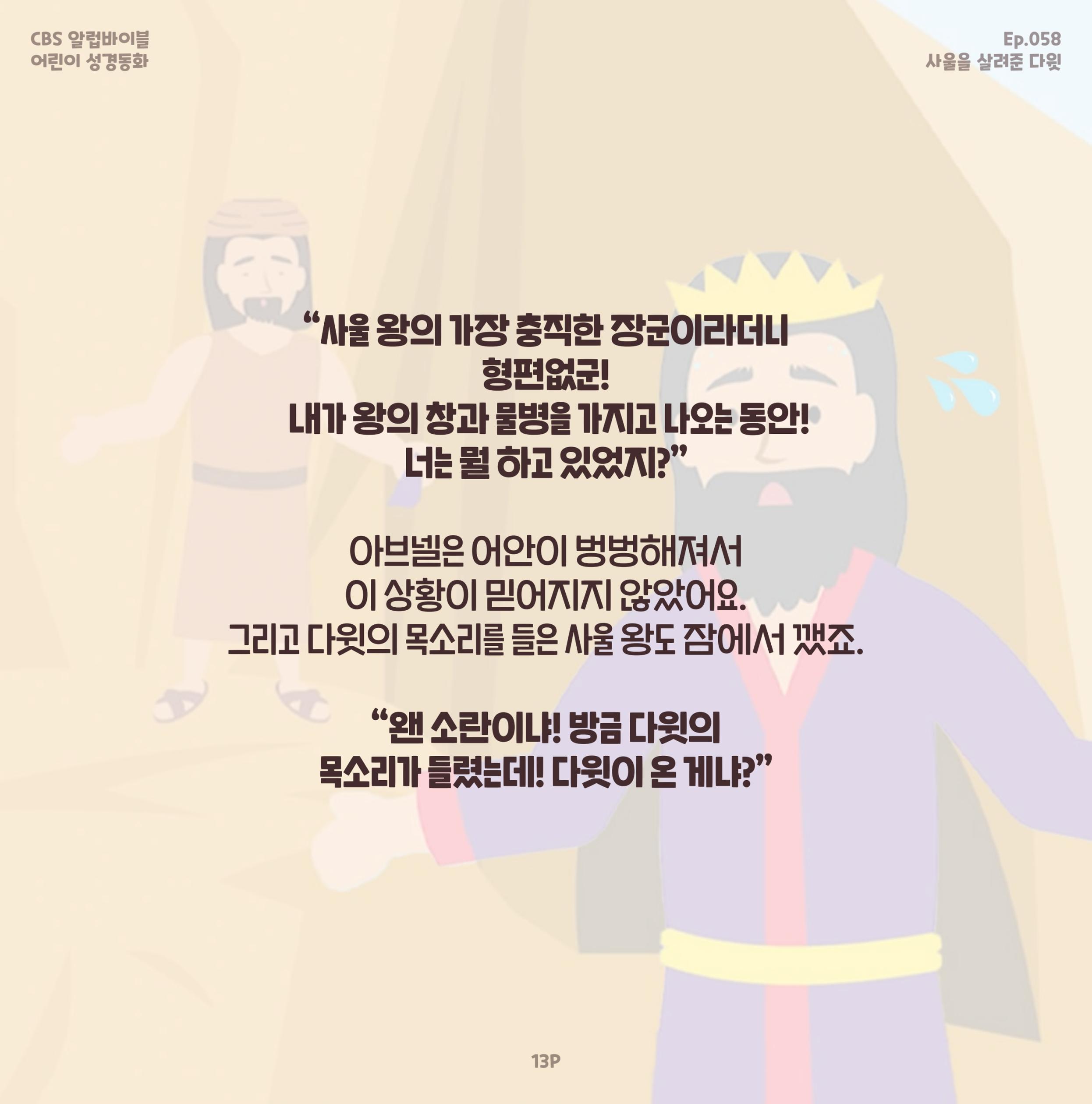
An illustration of King Saul and a man in a desert setting. King Saul is on the right, wearing a purple robe with a yellow sash and a yellow crown, looking surprised with sweat drops on his face.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brown tunic and sandals, looking towards Saul. The background shows a desert landscape with a tent and a bright sun.

그러고는 사울 왕의 진영을 빠져나와
높은 언덕에서 큰 소리로 외쳤죠.

**“아브넬! 그만 일어나고 내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 보거라!”**

단잠에 빠져있던 아브넬 장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뭐, 뭐야! 너, 너는 누구냐!”



**“사울 왕의 가장 충직한 장군이라더니
형편없군!
내가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너는 뭘 하고 있었지?”**

아브넬은 어안이 빙빙해져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 왕도 잠에서 깬죠.

**“웬 소란이냐! 방금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다윗이 온 게냐?”**

그러자 다윗이 또 한 번 외쳤어요.

**“왕이시여, 왜 여전히 저를 쫓고 계신 겁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벼룩을 쫓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왕의 창을 두고 갈 테니 신하를 보내 찾아가게 하십시오.”**

사울 왕은 다시 한번 모든 게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력에만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부끄러움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답니다!